

## 중국인들의 민주(民主)에 대한 인식\* : 제도적·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도구적 지지

강수정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 논문 요약

중국을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공산당 영도 하의 당국가체제를 고수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남아있다. 또한, 정치개혁에 있어서 중국은 서구식 민주화에 반대하며 소위 ‘중국 특색의 민주(民主)’를 추구해왔다. 이처럼 현실에서 중국은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상당수는 중국을 민주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아이러니가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이해(conception)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그러한 이해가 그들의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중국식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중국, 민주주의, 인식, 이해, 정치적 정당성, 정치적 만족, 도구적 지지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292).

## I. 서론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꿈’을 내걸고 강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공산당 영도 하의 당국가체제를 고수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남아있다. 오히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의 영도권과 권력집중,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국내정치적 행보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EU, 일본, 호주 등은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자유주의적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현상 변경(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sup>1)</sup>

정치개혁에 있어서 중국은 서구식 민주화에 반대하며 ‘중국 특색의 민주(民主)’를 추구해왔다.<sup>2)</sup> 소위 ‘중국식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 법치, 당내 민주화, 기층선거의 도입, 협상(協商)민주의 확대 등의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이러한

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2.pdf>(검색일: 2019.11.15.)).

2) 이희옥, “중국식 민주에 대한 하나의 해석.” 『중국학연구』 제58호, 2011, pp. 321-347;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4; 이정남,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아세아연구』 145호, 2011, pp. 183-213; Lee, Jung-Nam, “Perceptions of Democracy Among Chinese Intellectuals: Evidence from Political Scientists in Beijing and Shanghai.” *Asian Perspective*, Vol. 37, No. 3, 2013, pp. 333-361; 김재관, “현대화 과정의 중국특색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2012, pp. 75-119; 조영남,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과 중국학』 제10호, 2009, pp. 1-40; 조희연,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1호, 2012, pp. 269-314; 박종우,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논리와 특징.” 『중국학연구』 70호, 2014, pp. 231-258; 유은하,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 『아시아문화연구』 제48호, 2018, pp. 307-326; 장윤미,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구상.”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pp. 87-124; 남중호, “중국 사회주의 민주이론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4권 3호, 2010, pp. 157-172; 장윤미, “중국식 민주로 구축되는 신국가권위주의 체제: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정치체제 전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1호, 2009, pp. 153-186.

시도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sup>3)</sup> 비판적인 학자들은 중국의 정치개혁은 민주화 없는 제도화 중심의 개혁이며, 공산당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고 합리화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sup>4)</sup>

이처럼 현실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기대하는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에서 점차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의 상당수는 중국을 민주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제4차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sup>5)</sup>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응답자의 70% 가량이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물론, 그들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민주주의가 사소한 혹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 정부 하에서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1을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 10을 “완전히 민주적”으로 하여 1에서 10사이의 점수를 매기도록

3) 이문기, “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권 2호, 2012, pp. 37-68; 이홍규, “중국식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기층 선거의 성과와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1호, 2009, pp. 111-151; 이희옥,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국제정치논총』 제54권 2호, 2014, pp. 207-241.

4) 이정남, “시진핑(习近平)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아세아연구』 제151호, 2013, pp. 77-118.

5)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는 Prof. Fu Hu 와 Prof. Yun-han Chu 가 공동 책임자로, 대만 교육부, 대만중앙연구원, 국립대만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동 여론조사는 제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중국 지역의 경우, 제1차 조사는 2002년 3-6월, 제2차는 2007년 12월~2008년 12월, 제3차는 2011년 6월-10월, 제4차는 2014년 12월-2016년 6월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4차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Asian Barometer Survey, 2011)는 14개 아시아 국가들(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지역 조사의 경우, 칭화대학교 정치학과가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면설문조사(face-to-face interview)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자수는 18세 이상 4,068명(응답률: 67.65%)이다. 표본추출은 확률적 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인 다중중화지역표본추출방법(stratified 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조사 지역은 티벳자치구와 서장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29개省级 행정구역에서 시행되었다(www.asianbarometer.org 참조).

했을 때, 중국인 응답자들은 70%가량이 6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고, 평균 6.5의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는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결코 낮은 평가가 아니다.(그림1 참조)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에도, 중국인 응답자의 60%가량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표3 참조)

이렇듯 외부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현실과 중국인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본 논문은 그러한 차이가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conception)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러한 인식과 평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conception)와 중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특히,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그러한 이해가 그들의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중국식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민주주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주주의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인식의 변화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민주주의 평가나 지지도 조사 연구 등이 많이 이루어져왔다.<sup>6)</sup>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권위주의적 탄력성(authoritarian resilience)의 관점에서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나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 정치적 만족(political satisfaction)과

6) Dalton, Russell and Doh Chull Shin eds., *Citizens, Democracy, and Markets around the Pacific Ri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서경교,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제20권 2호, 2014, pp. 369-398; “필리핀 민주화 이행과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 『동남아연구』 제23권 3호, 2014, pp. 271-300; “인도네시아 대중들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동남아연구』 제24권 3호, 2015, pp. 3-31; “민주화 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 태국사례.” 『한국태국학회논총』 제19권 2호, 2013, pp. 145-177; “대중들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8권 2호, 2014, pp. 55-87; “동남아시아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 2016, pp. 145-171.

같은 정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들의 민주주의 이해(conception)와 인식(perception)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권위주의 국가들로 확장한다. 특히, 중국과 같은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나는 모순성과 그러한 이해가 그들의 자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그들의 평가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정치적 선전(political propaganda)과 체제정당성(regime legitimacy)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소위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담론<sup>8)</sup>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내재화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담론의 영향을 받은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중국공산당이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7) 강수정, “중국인들의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3호, 2017, pp. 171-203; Nathan, Andrew J.,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 14, No. 1, 2003, pp. 6-17; Wang, Zhengxu and Ern Ser Tan, “The Conundrum of Authoritarian Resiliency: Hybrid Regimes and Non-Democratic Regimes in East Asia.” Asian Barometer Working Paper Series, No. 65, 2012; Pei, Minxin,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Is CCP Rule Fragile or Resilient?” *Journal of Democracy*, Vol. 23, No. 1, 2012, pp. 27-41; Zhong, Yang, “Do Chinese People Trust Their Local Government, and Why.”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61, No. 3, 2014, pp. 31-44; Chen, Dan, “Local Distrust and Regime Support: Sources and Effects of Political Trust in Chin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70, No. 2, 2017, pp. 314-326; Zhai, Yida,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so what? The impacts of modernization on Chinese citizens’ political satisfac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4, 2016, pp. 533-549; Wang, Zhengxu, “Before the emergence of critical citizens: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trust in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5, No. 1, 2005, pp. 155-171; Chen, Jie, *Popular Political Support in Urban China*,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4.

8) Bing, Ngeow Chow, “Discourses on Chinese-Style Democracy in China.”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 No. 3, 2014, pp. 94-114.

〈표1〉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완전한 민주주의 (A full democracy)	213	5.2	5.2
사소한 문제가 있는 민주주의 (A democracy, but with minor problems)	1867	45.9	51.1
중요한 문제가 있는 민주주의 (A democracy, with major problems)	812	20.0	71.1
민주주의가 아님 (Not a democracy)	361	8.9	80.0
선택 안함	758	18.6	98.6
답변 거절	57	1.4	100.0
총계	4068	100.0	

질문: 중국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In your opinion how much of a democracy is the country?)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Wave 4, China data, 2015.

〈표2〉 현 정부 하에서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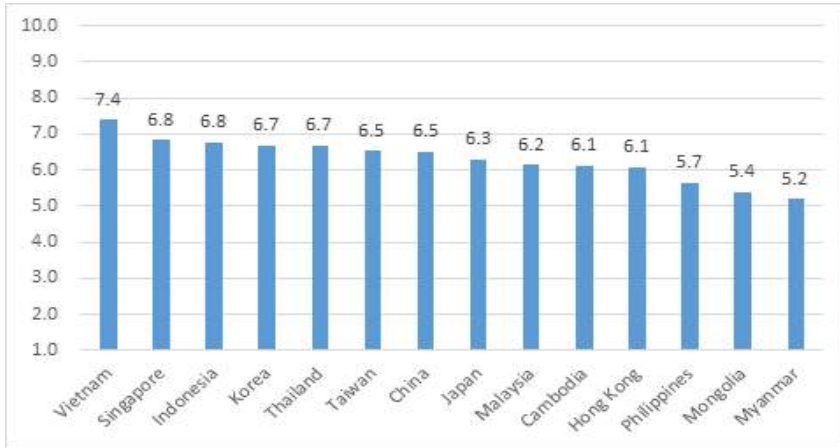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00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	72	2.2	2.2
2.00	40	1.2	3.4
3.00	119	3.6	7.0
4.00	210	6.4	13.4
5.00	636	19.3	32.7
6.00	556	16.9	49.5
7.00	542	16.4	66.0
8.00	610	18.5	84.4
9.00	219	6.7	91.1
10.00 (완전히 민주적)	294	8.9	100.0
총계	3298	100.0	
시스템 결측값	770		
전체 응답자수	4068		
평균	6.5034	표준편차	2.04659

질문: 현 정부 하에서 중국을 어디에 위치시키시겠습니까? (Where would you place our country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1-10 사이에서 응답. 1=전혀 민주적이지 않음, 10=완전히 민주적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Wave 4, China data, 2015.

<그림1>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Wave 4, 2014-2016.

<표3>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매우 만족 (Very satisfied)	275	6.8	6.8
상당히 만족 (Fairly satisfied)	2131	52.4	59.1
별로 만족스럽지 않음 (Not very satisfied)	821	20.2	79.3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Not at all satisfied)	126	3.1	82.4
선택 안함 (Can't choose)	663	16.3	98.7
답변 거절 (Decline to answer)	52	1.3	100.0
총계	4068	100.0	

질문: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On the whole, how satisfied or dissatisfied are you with the way democracy works in the country?)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Wave 4, China data, 2015.

## II.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본질적(intrinsic) 이해와 도구적(instrumental)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9)</sup>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민주주의가 민주적 절차와 가치의 확립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 이해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procedural) 이해와 가치중심적(value-based)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이해는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규범과 절차의 확립이라는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다.<sup>10)</sup> 즉, 다당제에 기반한 경쟁 선거,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법치와 사법권의 독립, 민주적 심의·의결 시스템, 등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절차적 민주주의로 개념화될 수 있다. 또 다른 본질적 이해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이해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 국민주권, 정치적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국민주권의 실현, 시민권 보장, 정치적 자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당위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는 민주적 가치, 절차와 규범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보다는 민주주의의 정책적 성과(policy outcomes)를 중시한다.<sup>11)</sup>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는 민주주의를 국가가 지닌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처방으로 여길 수 있다.<sup>12)</sup> 국가가 지닌 문제는 인플레이션,

9)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Support for Democracy in Africa: Intrinsic or Instrument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3, 2001, pp. 447-474.

10) Dahl, Robert,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1) Zhai, Yida, "Popular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Democratic Satisfaction in Chin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0, No. 2, 2019, pp. 246-262.



법과 질서의 붕괴, 경제적 위기, 군사적 패배 등 다양하며, 이러한 위에서 정치지도자나 대중은 하나의 해법으로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도입하기도 하지만, 산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한 권위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적인 제도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도구적 이해는 국가가 처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서 민주주의를 통해 좋은 거버넌스, 민생 해결, 경제적 성장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sup>13)</sup>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실현이나, 경제 회복/성장, 경제적 불평등 완화, 민생 개선과 같은 사회경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 민주주의의 성패는 그 정책적 성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구적 민주주의는 성과중심적 정당성(performance-based legitimacy)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어떠한 정치제도이든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 경제성장, 그리고 부의 불평등 완화와 같은 경제적 성과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4)</sup> 브래튼과 매티스(Bratton and Mattes)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경제회복·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경우 대중은 민주주의를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 혹은 경제회생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로 한다.<sup>15)</sup> 그러나

12)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3, pp. 33-34.

13)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Support for Democracy in Africa: Intrinsic or Instrument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3, 2001, pp. 447-474.

14) Przeworski, Adam, et al., "What makes Democracies Endure?"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 1, 1996, pp. 39-55; Diamond, Larry and Juan J. Linz, "Introduction: Politics, Democracy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in Larry Diamond, Juan Liz and Seymour M. Lipset eds.,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Latin America*. Boulder, Colo.: Lynne Rienner, 1989.

15)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Support for Democracy in Africa: Intrinsic or Instrumental?"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지지라고 볼 수 없다. 잉글하트와 웰젤(Inglehart and Welzel)은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지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민주주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sup>16)</sup> 이렇듯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원하는 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쉽게 붕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sup>17)</sup>

본 세션은 제4차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네 개의 설문문항을 활용한다. 네 개의 문항은 각각 응답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들을 보여주는 네 개의 문장을 선택지로 제시하고 그 중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씩 고르도록 했다(표4 참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본질적(intrinsic) 이해, 도구적(instrumental)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다시 절차적(procedural) 이해와 가치중심적(value-based) 이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절차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절차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다당제 하의 공정한 경쟁 선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법치와 같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확립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하는지 보았다. 둘째, 가치중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언론·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3, 2001, pp. 447-474.

16)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pp. 61-79.  
17)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태국의 민주주의의 붕괴와 필리핀의 반인권적인 우파정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1998년의 경제위기가 민주적 전환을 가져온 이래 여전히 민주정부가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지은주,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강원택 외,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기 위해,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실현이나 민생 개선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서의 정책적 성과를 위한 방안들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민생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민주주의의 도구적 가치와 정책적 성과를 강조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실업, 빈곤과 같은 민생 문제 개선을 위한 빈부격차 축소, 의식주(기초생활)보장, 일자리 보장, 실업수당 지급과 같은 정책들의 도입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들로 인식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건설’을 강조하는 중국정치의 아젠다를 고려할 때, 중국인들의 상당수가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로서 민주주의를 이해할 수도 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실행의 목적은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 좋은 거버넌스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부분하지만, 좋은 거버넌스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통치(국가 운영) 방식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공적 서비스의 제공, 법과 질서 확립,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과 같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많은 중국인 응답자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표4 참조).

〈그림 2〉를 보면,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으로 절차적(제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의 확립을 강조하는 절차적(제도적) 관점에서 ‘법치’를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외로, 절차적(제도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도 2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정치개혁의 아젠다로 법치를 강조해왔고 중국 특

색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층선거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법치와 선거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18.8%)과 다당제 하의 공정한 경쟁선거(14.2%)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응답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국은 의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지방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과 경쟁적 선거를 위한 다당제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정치제도들이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법치’와 다당제 하의 경쟁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기층선거’와 같은 상당히 제한적 의미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절차적 관점 외에, 중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관점에서, 민생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의식주) 보장(31.8%), 일자리 보장(28.2%), 빈부격차 축소(22.2%)와 같은 정책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30.3%),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26.9%),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24.6%)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국가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처방)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 그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한 정책적 성과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가 좌절되거나 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 전체 응답자들 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해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 실현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20.4%)를 제외하고, 언론(8.3%)·집회(6.2%)·결사(3.6%)의 자유 보장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매우 제한적·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보다는 다른 국가적 목표의 실현을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정책적 성과와 도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민주적 가치와 규범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의 이해와는 거리가 있으며,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제한적인 절차적(제도적) 민주화를 통해 정치·사회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현대적인 거버넌스 체제의 건설, 민생 개선 등 국가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의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그 정책적 성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표4〉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구분	특징	문항	빈도	퍼센트
자유1	표현의 자유 보장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830	20.4
자유2	결사의 자유 보장	사람들이 정치적 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148	3.6
자유3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337	8.3
자유4	집회의 자유 보장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251	6.2
제도1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1150	28.3
제도2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입법부가 정부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지는 것	765	18.8
제도3	다당제 하의 공정한 경쟁 선거	다수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	576	14.2
제도4	법치	사법부가 정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1441	35.4
민생1	빈부격차 축소	정부가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것	905	22.2
민생2	기초생활 보장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	1293	31.8
민생3	일자리 보장	정부가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1147	28.2
민생4	실업 수당 제공	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571	14.0
거버넌스1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정부가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않은 것	467	11.5
거버넌스2	공공 서비스 제공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094	26.9
거버넌스3	법과 질서의 확립	정부가 법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	1233	30.3
거버넌스4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	정치가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것	1002	24.6

질문: 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특성을 고르시오(which one would you choose as the most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democracy?)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Wave 4, China data, 2015.

<그림2>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출처: Asian Barometer Survey Wave 4, China data, 2015.

### III.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평가 사이의 관계

: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들이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인들의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현 정부 하에서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중국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여기에서,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로 나누고, 어떠한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할수록,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과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는지 (혹은 낮아지는지) 살펴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의 경우, 민생 개선과 좋은 거버넌스 실현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가 중국의 민주적 수준과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먼저, 앞서 살펴본 설문문항들을 활용하여 측정된 독립변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종속변수(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5 참조). 모형1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4개의 카테고리(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 민생 개선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 좋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로 나누어 어떠한 관점에서의 이해가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모형2, 3, 4, 5는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카테고리 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모형2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이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3은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법치,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다당제 하에서의 경쟁 선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이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4는 민생 개선을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빈부격차 축소, 기초생활 보장, 일자리 보장, 실업 수당 제공)이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5는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을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적 성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 법과 질서의 확립,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이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 이해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가치중심적으로 이해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법치,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다당제 하에서의 경쟁 선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중에서 법치,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다당제 하에서의 경쟁 선거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중에서는 언론·집회·표현의 자유 보장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와 관련하여, 민생 개선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 법과 질서의 확립,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 중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을 민주주의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앞서 살펴본 설문문항들을 활용하여 측정된 독립변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종속변수(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도 실시하였다(표6 참조). 모형1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4개의 카테고리(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 민생 개선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 좋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로 나누어 어떠한 관점에서의 이해가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모형2,3,4,5는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카테고리 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수들이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카테고리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할수록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지(혹은 낮아지는지)를 보여준다. 모형2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중 어떠한 요소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할 때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지(혹은 낮아지는지)를 보여준다. 모형3은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법치,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다당제 하에서의 경쟁 선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중 어떠한 요소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할 때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지(혹은 낮아지는지)를 보여준다. 모형4는 민생 개선을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빈부격차 축소, 기초생활 보장, 일자리 보장, 실업수당 제공) 중에 어떤 요소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할수록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지(혹은 낮아지는지)를 보여준다. 모형4는 좋은 거버넌스의 실현을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 법과 질서의 확립,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 중 어떤 요소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할 때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지(혹은 낮아지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 가치 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 민생 개선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 좋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모두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과 도구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를 제도적(절차적) 관점이나 도구적 관점에서 이해할수록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가치중심적으로 이해할수록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법치,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다당제 하에서의 경쟁 선거,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중에서는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할수록,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당제 하에서의 경쟁 선거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와 관련하여, 민생 개선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빈부격차 축소, 기초생활 보장, 일자리 보장, 실업 수당 제공) 중에서 일자리 보장과 실업 수당 제공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중국적 민주주의 실행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 법과 질서의 확립,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의 실현) 중에서, 법과 질서의 확립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이해는 중국적 민주주

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부적인(-)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중심적 이해를 보여주는 4개의 요소들(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중에서 언론·집회의 자유 보장을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하는 경우,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치중심적 이해	제도적(절차적) 이해	도구적 이해(민생 개선)	도구적 이해(좋은 거버넌스)
(상수)		4.947	5.074	4.927	4.970	4.986
성별(1=남자)		0.037 (0.009)	0.056 (0.014)	-0.005 (-0.001)	0.034 (0.008)	0.035 (0.008)
연령		0.020*** (0.150)	0.019*** (0.147)	0.020*** (0.150)	0.020*** (0.154)	0.020*** (0.153)
교육수준		-0.124*** (0.161)	-0.120*** (-0.156)	-0.132*** (-0.172)	-0.123*** (-0.160)	-0.133*** (-0.173)
경제적 수준		0.246*** (0.243)	0.250*** (0.247)	0.242*** (0.239)	0.251*** (0.247)	0.247*** (0.244)
가치중심적 이해 (정치적 자유)		-0.866*** (-0.076)				
제도적(절차적) 이해		0.439** (0.053)				
도구적 이해 (민생 개선)		0.027 (0.003)				
도구적 이해 (좋은 거버넌스)		0.123* (0.014)				
자유1	표현의 자유 보장		-0.160** (-0.034)			
자유2	결사의 자유 보장		-0.210 (-0.021)			
자유3	언론의 자유 보장		-0.330*** (-0.048)			
자유4	집회의 자유 보장		-0.361*** (-0.046)			

독립변수 (종속변수 =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치중심적 이해	제도적 (절차적) 이해	도구적 이해 (민생 개선)	도구적 이해(좋은 거버넌스)
제도1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0.234*** (0.054)		
제도2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0.304*** (0.062)		
제도3	다당제 하의 공정한 경쟁 선거			-0.465*** (-0.085)		
제도4	법치			0.252*** (0.061)		
민생1	빈부격차 축소				-0.057 (-0.012)	
민생2	기초생활 보장				-0.036 (-0.009)	
민생3	일자리 보장				0.089 (0.020)	
민생4	실업 수당 제공				-0.040 (-0.007)	
거버넌스1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0.064 (0.010)
거버넌스2	공공 서비스 제공					-0.122* (-0.028)
거버넌스3	법과 질서의 확립					0.369*** (0.087)
거버넌스4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					-0.179** (-0.040)
<i>F</i>		61.723***	60.814***	65.285***	56.977***	61.281***
<i>R</i> <sup>2</sup>		0.136	0.134	0.143	0.127	0.135
<i>adjR</i> <sup>2</sup>		0.134	0.132	0.141	0.125	0.133

\*\*\* p&lt;0.01, \*\*p&lt;0.05, \*p&lt;0.1

<표6>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치중심적 이해	제도적 (절차적) 이해	도구적 이해 (민생 개선)	도구적 이해(좋은 거버넌스)
(상수)		-0.141	0.058	0.026	-0.044	0.022
성별(1=남자)		0.022 (0.011)	0.029 (0.014)	0.007 (0.003)	0.031 0.015	0.016 (0.008)
연령		0.005*** (0.081)	0.005*** (0.073)	0.005*** (0.075)	0.005*** 0.078	0.005*** (0.077)
교육수준		-0.051*** (-0.139)	-.043*** (-0.116)	-0.049*** (-0.133)	-0.045*** -0.123	-0.051*** (-0.137)
경제적 수준		0.072*** (0.144)	0.076*** (0.153)	0.072*** (0.145)	0.076*** 0.152	0.074*** (0.149)
가치중심적 이해 (정치적 자유)		-0.206** (-.035)				
제도적(절차적) 이해		0.303*** (0.075)				
도구적 이해 (민생 개선)		0.345*** (0.089)				
도구적 이해 (좋은 거버넌스)		0.251*** (0.057)				
자유1	표현의 자유 보장		-0.058 (-.024)			
자유2	결사의 자유 보장		-.028 (-0.005)			
자유3	언론의 자유 보장		-0.178*** (-0.050)			
자유4	집회의 자유 보장		-0.164** (-0.041)			
제도1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			0.145*** (0.066)		
제도2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			0.058 (0.023)		
제도3	다당제 하의 공정한 경쟁 선거			-0.131*** (-0.047)		

독립변수 (종속변수 =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전체	가치중심적 이해	제도적 (절차적) 이해	도구적 이해 (민생 개선)	도구적 이해(좋은 거버넌스)
제도4	법치			0.034 (0.016)		
민생1	빈부격차 축소				0.040 0.017	
민생2	의식주 보장 (기초생활 보장)				0.053 0.025	
민생3	일자리 보장				0.066* 0.030	
민생4	실업 수당 제공				0.105** 0.037	
거버넌스1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0.026 (0.008)
거버넌스2	공공 서비스 제공					-0.022 (-0.010)
거버넌스3	법과 질서의 확립					0.135*** (0.063)
거버넌스4	깨끗하고 부패 없는 정치					0.007 (0.003)
<i>F</i>		29.401***	25.768***	25.085***	24.079***	23.835***
<i>R</i> <sup>2</sup>		0.061	0.054	0.55	0.052	0.052
<i>adjR</i> <sup>2</sup>		0.059	0.052	0.53	0.050	0.050

\*\*\* p<0.01, \*\*p<0.05, \*p<0.1



#### I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은 주로 민주주의를 제도적(절차적) 관점과 도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절차적) 관점과 도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의 이해는 중국인들의 중국적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를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 이해하거나, 민생 개선,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주의를 제도적(절차적) 관점에서 이해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인들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를 한다. 중국은 정치개혁에 있어서 ‘중국 특색의 민주’를 강조하면서 법치의 강화, 기층 선거의 도입, 당내 민주화, 협상(協商)민주의 확대 등 절차화·제도화 중심의 정치개혁을 진행해왔고 인민을 위한 봉사를 강조하며 민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중국의 정치개혁에 있어서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아젠다와 담론은 다당제나 정치적 자유의 확대 없이도 당의 일원적 영도 하에서 법치의 확립, 기층선거의 도입, 당내 민주화, 협상민주의 확대, “인민을 위한” 민생 정책 추진, 현대적 거버넌스 체제의 건설을 통해 중국

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중국 정치개혁의 아젠다와 담론은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중국인들의 소위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중국적 민주주의 아젠다와 담론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의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 없이 제도적(절차적)·도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경우 중국적 민주주의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그 정책적 성과에 쉽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제도적(절차적)·도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의 이해에 바탕을 둔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에 바탕을 둔 본질적 지지(intrinsic support)가 아니라, 중국 정치개혁의 정책적 성과에 따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이 기대하는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중국인들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즉, 중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중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만족도가 가지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18)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지지(intrinsic support)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구현하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 있는 것으로 여긴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빈곤 완화와 같은 다른 목적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도구적인 계산을 반영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구적 지지와 본질적 지지의 개념은 다음을 참조. Pavlovic, Zoran, “Intrinsic or Instrumental Support for Democracy in a Post-Communist Society.” *The Case of Serbia*, Vol. 3, No. 1, 2014, pp. 31-42;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Support for Democracy in Africa: Intrinsic or Instrument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3, 2001, pp. 447-474; Tankebe, Justice, “The making of democracy’s champions: Understanding police support for democracy in Ghana.”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Vol. 14, No. 1, 2014, pp. 25-43; Ben-Nun Bloom, P. and Arikan, G., “Religion and Support for Democracy: A Cross-National Test of the Mediating Mechanism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3, No. 2, 2013, pp. 375-397.

또한, 아직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인들의 일부는 가치중심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의 민주적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중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렇듯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중심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수록 중국의 민주적 수준에 대한 평가와 중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에 대한 불만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불만의 확대는 결국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민주화와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수정, “중국인들의 정치적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3호, 2017.
- 김재관, “현대화 과정의 중국특색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12권 3호, 2012.
- 남종호, “중국 사회주의 민주이론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4권 3호, 2010.
- 박종우,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논리와 특징.” 『중국학연구』 70호, 2014.
- 서경교, “민주주의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연구.” 『한국태국학회논총』 제20권 2호, 2014.
- \_\_\_\_\_, “필리핀 민주화 이행과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 『동남아연구』 제23권 3호, 2014.
- \_\_\_\_\_, “인도네시아 대중들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동남아연구』 제24권 3호, 2015.
- \_\_\_\_\_, “민주화 과정에 대한 대중들의 정치적 인식: 태국사례.” 『한국태국학회논총』 제19권 2호, 2013.
- \_\_\_\_\_, “대중들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8권 2호, 2014.
- \_\_\_\_\_, “동남아시아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 2016.
- 유은관, “중국의 민주주의 인식과 중국몽.” 『아시아문화연구』 제48호, 2018.
- 이문기, “중국의 기층선거: 선거 민주주의인가 선거 권위주의인가.”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0권 2호, 2012.
- 이정남, “시진핑(习近平)지도체제의 등장과 중국의 정치개혁과 정치변화 전망.” 『아세아연구』, 제151호, 2013.
- \_\_\_\_\_,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아세아연구』, 통권 145호, 2011.
- 이흥규, “중국식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기층 선거의 성과와 한계.”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1호, 2009.
- 이희옥, “중국식 민주에 대한 하나의 해석.” 『중국학연구』 제58호, 2011.
- \_\_\_\_\_,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 \_\_\_\_\_, “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국제정치논총』 제54권 2호, 2014.
- 장윤미, “중국식 민주로 구축되는 신국가권위주의 체제: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정치체제 전환.”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1호, 2009.
- \_\_\_\_\_, “중국의 사회주의민주정치 구상: 인민의 복귀(bring the people back in).” 『국가전략』 제21권 3호, 2015.
- 조영남,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과 중국학』 제10호, 2009.

- 조희연,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1호, 2012.
- 지은주,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강원택 외,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 Nathan, Andrew J., “China’s Changing of the Guard: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 14, No. 1, 2003.
- Ben-Nun Bloom, P. and Arikan, G., “Religion and Support for Democracy: A Cross-National Test of the Mediating Mechanism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43, No. 2, 2013.
- Bing, Ngeow Chow, “Discourses on Chinese-Style Democracy in China.”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2, No. 3, 2014.
- Bratton, Michael and Robert Mattes, “Support for Democracy in Africa: Intrinsic or Instrumental?”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1, No. 3, 2001.
- Chen, Dan, “Local Distrust and Regime Support: Sources and Effects of Political Trust in Chin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70, No. 2, 2017.
- Chen, Jie, *Popular Political Support in Urban China*.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4.
- Dahl, Robert,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Dalton, Russell and Doh Chull Shin eds., *Citizens, Democracy, and Markets around the Pacific Ri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Diamond, Larry and Juan J. Linz, “Introduction: Politics, Democracy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in Larry Diamon, Juan Liz and Seymour M. Lipset eds.,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Latin America*. Boulder, Colo.: Lynne Rienner, 1989.
-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3.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 Lee, Jung-Nam, “Perceptions of Democracy Among Chinese Intellectuals: Evidence from Political Scientists in Beijing and Shanghai.” *Asian Perspective*, Vol. 37, No. 3, 2013.
- Minxin Pei,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Is CCP Rule Fragile or Resilient?” *Journal of Democracy*, Vol. 23, No. 1, 2012.

- Pavlovic, Zoran, "Intrinsic or Instrumental Support for Democracy in a Post-Communist Society." *The Case of Serbia*, Vol. 3, No. 1, 2014.
- Przeworski, Adam, et al., "What makes Democracies Endure?" *Journal of Democracy*, Vol. 7, No. 1, 1996.
- Tankebe, Justice, "The making of democracy's champions: Understanding police support for democracy in Ghana."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Vol. 14, No. 1, 2014
- Wang, Zhengxu, "Before the emergence of critical citizens: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trust in China."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5, No. 1, 2005.
- Zhai, Yida, "Remarkable economic growth, but so what? The impacts of modernization on Chinese citizens' political satisfactio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7, No. 4, 2016.
- Zhai, Yida, "Popular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Democratic Satisfaction in Chin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0, No. 2, 2019.
- Zhengxu Wang and Ern Ser Tan, "The Conundrum of Authoritarian Resiliency: Hybrid Regimes and Non-Democratic Regimes in East Asia." Asian Barometer Working Paper Series, No. 65, 2012.
- Zhong, Yang, "Do Chinese People Trust Their Local Government, and Why?"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61, No. 3, 2014.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2.pdf>(검색일: 2019.11.15)).

Abstract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Democracy:  
Procedural-Instrumental Conception and Instrumental Support

Su-Jeong Kang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proponents of liberal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China has not followed the path of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nd still remains an authoritarian state that adheres to the authoritarian system under the Communist Party's leadership. In addition, in its political reform, China opposes Western-style democratization and has pursued what it calls "Chinese-style democracy". In this reality, China seems to be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e path of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but the results of the Chinese poll show that, ironically, many Chinese perceive China as a democratic country, and that they are not only relatively highly valued, but also quite satisfied with the way Chinese-style democracy is implemented in the country. This paper st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this irony can result from a different conception of democracy. Under this sense of question, this paper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people's understanding of democracy and their assessment of Chinese-style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nception of democracy and how such a conception affects their evaluation of China's democratic level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way Chinese-style democracy is implemented.

Keyword: China, Democracy, Perception, Conception, Political Legitimacy, Political Satisfaction, Instrumental Support

투고일: 2019년 11월 16일, 심사일: 2019년 12월 8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19일